

## ■ 2017년도 ACCELERATE Korea Award 지원심의회평

- 사업 유형 및 심의분과 : ACCELERATE Korea Award
- 회의일시 : 2017. 2. 17(금), 10:00 ~ 12:00
- 회의장소 : 예술가의집 세미나실1

이번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유럽입자물리연구소(CERN)가 협력한 Accelerate Korea Award에 국내외에서 활동하는 다양한 예술가들이 지원하였다. 지원자들은 시각예술 혹은 시각성을 바탕으로 다원예술을 추구하는 다양한 작가들이 대부분이었으며, 이 Award가 가진 특별함 때문에 기존의 예술지원프로그램과는 다른 독특한 경력의 지원자들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심사위원들은 프로젝트의 내용과 취지의 적합성과 독창성, 실행 및 성취 가능성, 결과물의 기여 및 파급효과를 중심으로 평가하였다. 예술과학지원 프로그램이지만 기존 장르(회화, 설치 등)와 과학기술 중심의 뉴미디어예술 등 장르에 차등을 두지 않았으며 제시된 평가기준에 의거하여 심사하였다.

그러나 CERN의 정체성과 연구, 활동, 시설과 CERN에서 진행한 기존 예술·과학통섭 프로젝트에 대해 충분히 연구하지 않은 지원자들이 적지 않았다. 또한 (현대)물리학과 특히 입자물리학에 대한 연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프로젝트들 또한 적지 않았다. 이러한 사전조사와 예비지식의 결핍으로 발생하는, 예술과학 프로젝트로서의 타당성이 부족한 제안서는 낮은 점수를 받았다.

과학적 지식이 반영되었다고 하더라도, 과학과 예술의 연계성이 부족한 프로젝트들 역시 낮은 평가를 받았으며, 특히 자신이 해왔던 기존 작업들을 설득력 없이 특정 과학이론과 '단순히' 끼워 맞춘 프로젝트들도 높은 평가를 받지 못하였다. 또한 기존의 작업과 경력이 우수하여 프로젝트의 실행력이 높더라도, 사업의 취지에 적합하지 않거나, 구체적이지 못한 작업, 단순한 과학의 시각화 프로젝트들은 높은 평가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과학적 이해가 '다소' 부족하더라도, 자신만의 상상력으로 흥미롭게 전개한 독특한 작업들은 CERN이 추구하는 이질 분야의 충돌(collide)로 인해 발생하는 창발성을 반영하여 평가하였다. 사업수행 전 조사부터 사업취지, 수행성, 기여도 등 모든 측면에서 충실한 내용과 가능성을 제시한 기획안, 프로젝트 수행방법과 결과작품의 공유 등에 대해 비교적 타당한 계획안을 제시한 기획안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흥미로운 계획을 제시한 작가들이 있었지만, 이번 1차선정에서 가장 아쉬운 점은 '입자물리학과 예술 간의 창의적이고 심도있는 연결'에 대한 부족에 있다. 예술가가 과학자가 될 필요는 없겠으나, 예술가에게 과학적 교양은 시대인식과 현상 이해의 필수요소이다. 예술가의 지속적인 연구와 이와 같은 프로그램의 꾸준한 시행을 통해서 그리고 예술성과 과학성의 충돌로 인해 발생하는 통섭적 창의를 바탕으로,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예술가들이 늘어나길 바란다.

심의위원 일동